

경상남도, 공동체 문화 활성화 위한 아파트 공유공간 조성 지원

경상남도 사회혁신추진단
2022.7.5.

경상남도는 '2022년 아파트공동체 공유공간 조성지원사업' 대상지 5개소를 최종 선정하였다. 아파트공동체 공유공간 조성지원사업은 단지 내 유휴공간이나 기존 공유공간을 주민 간 교류 증진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월부터 참여를 원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과 서류·현장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진주, 사천, 거제, 함안 등 선정된 아파트에는 도·시비 4,000만 원 등 모두 2억 원이 투입되어 공유공간이 새롭게 조성된다.

이번 사업은 조성공간의 주민참여와 활용도를 높이고자 공공건축가들과 경남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공동체협력지원가, 입주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디자인워크숍을 운영하였으며, 공간구성 맞춤형 컨설팅을 거쳐 아파트 공동체 복합문화공간과 작은도서관 등의 공간으로 단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웃 간 신뢰 회복을 지원하는 주민소통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상남도는 2020년부터 아파트 공동체와 공공건축가, 공동체협력지원가와 함께 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공유공간을 조성해 왔으며, 현재까지 조성된 아파트공동체 공유공간은 창원 등 7개소이다.



2022년 아파트공동체 공유공간 조성 위한 예비후보자 워크숍 현장
출처: 경상남도. (2022). 경상남도, 공동체 문화 활성화 위해 아파트 공유공간 조성 지원한다. 7월 5일 보도자료.